

문서번호 총선넷2016-0018

수 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발 신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_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02-6712-5294 ask2016change@gmail.com)

제 목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대표자 국가정보원장 면담요청

날 짜 2016. 3. 11. (총 2 쪽)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2.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불법대선개입’ 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는 정권 옹호의 논리 하에 자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전을 펼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 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4.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전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형식적인 개편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안’에 따른 조치사항들은 있지만, 어떤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또는 공작행위를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5. 이에 캠페인단이 지난 3월 4일 국가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캠페인단이 회신을 요구한 3월 11일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6. 따라서 캠페인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지난 대선불법개입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이 이행한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

* 면담은 3월 16일(수) ~ 3월 22일(화) 중 가능한 일정을 3월 16일(수)까지 확인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회신처 : 담당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02-6712-5294 ask2016change@gmail.com)

* 면담에는 캠페인단 대표자인 2016 총선넷 공동대표 및 공동운영위원장 등 대표단 4-5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서번호 총선넷2016-0019

수 신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발 신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_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02-6712-5294 ask2016change@gmail.com)

제 목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대표자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면담요청

날 짜 2016. 3. 11. (총 2 쪽)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2.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불법대선개입’ 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를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는 정권 옹호의 논리 하에 자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전을 펼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 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4. 2015년 5월, 서울동부지법은 온라인 선전전을 수행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여론 형성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불법대선개입 사건 이후 심리전단의 활동에 불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직 명칭만 바꿨을 뿐, 정치관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 이에 캠페인단이 지난 3월 4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캠페인단이 회신을 요구한 3월 11일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6. 따라서 캠페인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지난 대선불법개입사건 이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행한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께 면담을 요청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끝.

* 면담은 3월 16일(수) ~ 3월 22일(화) 중 가능한 일정을 3월 16일(수)까지 확인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회신처 : 담당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02-6712-5294 ask2016change@gmail.com)

* 면담에는 캠페인단 대표자인 2016 총선넷 공동대표 및 공동운영위원장 등 대표단 4-5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서번호 총선넷2016-0021

수 신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참조 : 위원장 비서실 02-503-0321)

발 신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_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02-6712-5294 ask2016change@gmail.com)

제 목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면담요청

날 짜 2016. 3. 11. (총 2 쪽)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2.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전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선관위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3.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건에 책임이 있는 어떤 국가기관도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하는 등의 자체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심리전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정치개입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심리전단의 조직 명칭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이에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캠페인단이 지난 3월 4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캠페인단이 회신을 요구한 3월 11일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6. 따라서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선관위가 이행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께 면담을 요청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선관위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끝.

* 면담은 3월 16일(수) ~ 3월 22일(화) 중 가능한 일정을 3월 16일(수)까지 확인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회신처 : 담당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02-6712-5294 ask2016change@gmail.com)

* 면담에는 캠페인단 대표자인 2016 총선넷 공동대표 및 공동운영위원장 등 대표단 4-5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